

## ■ ( 언론 동향 ) 2021.11.29. “한겨레” 보도

### ○ 요소수 이어 비료대란? 수급보다 가격이 문제

#### - 가격 급등은 불가피...밥상물가 압박 요인

국내 농업 분야에서 무기질비료(질소, 인산, 칼리 등 화학비료) 사용량은 큰 흐름으로 줄고 있다.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가축분뇨 퇴비를 비롯한 유기질 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쪽으로 농업 정책을 펴온 데 따른 것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속에서, 그것도 농한기인 11월임에도 한동안 ‘비료 대란’ 소동이 일었던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중국발 요소 사태’ 탓이었다. 자동차용 요소수 제조에 쓰이는 요소는 물론, 농업용 질소 비료 원료인 요소도 구하기 어려워져 내년 봄에 극심한 비료 수급난이 빚어질 것이란 식의 전망이 많이 돌았다. 이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져 ‘밥상물가’를 밀어 올릴 요인으로 꼽혔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는 “비료 원자재로 따지면 상반기에 필요한 물량이 요소 25만t을 비롯해 48만t인데, 절반가량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기별 비료 사용은 상반기가 70%가량을 차지해 하반기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이 담당자는 “지금은 국제적으로 가격이 올라 문제이지, 원자재 구입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급난은 쏠다 해도 가격 급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표적인 비료 원재료인 요소 가격이 지난해 말 t당 300달러 수준에서 올해 10~11월 3배 이상 높은 1천달러 안팎까지 치솟아 있기 때문이다. 비료 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농가 생산비 증가, 농산물값 상승세로 이어질 것 이란 관측을 낳은 대목이다.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국내 농가의 농업경영비에서 비료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6.1% 수준이다. 절대적으로 큰 비중이라 할 순 없지만, 비료 외 다른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추가로 겹치는 요인이어서 농산물 가격의 급등세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1. 29.(월)

국내 화학비료 유통 구조는 농협이 비료업체 7곳을 대상으로 입찰을 붙여 구매한 뒤 농민에게 되파는 형태다. 한 해 필요한 물량을 전년 말이나 연초에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며 농협의 수요 독점 체제다.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배경이다.

농협은 내년 비료 가격 산정을 위한 입찰을 앞두고 현재 원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 1900곳 남짓 단위 농협(본점+지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아울러 진행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납품가 인상이 모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농민 판매 가격은 일정 수준 오를 수밖에 없다.

농협이 비료 구매가격 결정 방식을 일부 바꾼 것도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농협은 내년부터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연동형 구매 계약 방식으로 바꾸고, 납품 단가를 연중 고정하던 방식에서 분기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료업체 요청에 따른 것이다.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때론 내림세를 탈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은 상승세 쪽으로 기울어 있다.

< 김영배 선임기자 >